

김승연 한화회장 창업대상 수상

한화그룹 창업주인 김종희 회장과 김승연 회장이 한국 경영사학회에서 수여하는 창업대상을 수상했다.

창업대상은 매년 국내산업 발전과 사회에 기여한 우수하고 모범적인 창업정신을 가진 기업인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한국경영사학회 관계자는 “현암 김종희 회장이 사업보국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국내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그룹을 창업·발전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는 “변화관리 및 신용과 의리, 이슈와 위기관리의 리더로서 한화그룹의 제2의 창업을 달성했다”며 기업가 정신과 경영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은 “창업자 시대로부터 계승된 신용과 의리의 리더십이야말로 위기의 순간 한화인들을 강한 결속력으로 이끌던 저력의 원천이었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사학회는 1986년 설립됐으며 전국에 500여명의 교수와 연구회원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경영학 연구단체로 한국의 대표기업 및 기업가의 철학과 경영전략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창업대상 시상식은 11월27일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으며, 한국경영사학회는 김승연 회장에게 창업대상 상패와 한화그룹 연구논문집을 전달했다.

<화학저널 2009/11/27>